

# ‘새로운 희망구’ 동아시아 연구 활발

## 서구적 근대를 넘어서려는 진지한 모색 다양

최근 서점가에는 동아시아 문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기초한 연구 성과들이 속속 선보여 눈길을 끈다.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동아시아의 보수와 개혁》 《동아시아 문학의 기본구도》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정치제도와 경제성공》 《동남아의 정치경제》 《일제하의 동남아》 등이 그것이다.

최근에 나온 이러한 동아시아 관련 연구 서들은 서양학에 치우쳤던 우리나라 외국학의 편향 현상을 바로잡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종래에 나왔던 동아시아 관련 책들이 이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제적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개괄적인 소개서나 교과서 수준의 역사, 문화 안내서 정도에 그쳤던 데서 탈피, 보다 다양한 주제로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 의미를 던진다.

### 국제정치 구조의 변화에 힘입어

우리 학계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냉전체제가 와해됨에 따라 강대국 중심의 국제정치 구조가 변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블록화가 진행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이 새로운 희망구로 급부상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힘입은 바 크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세계화 바람도 관심의 다변화를 촉진했고, 이와 더불어 국학에 대한 관심고조도 서양학 일변도에서 우리나라가 속한 동양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동양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동양에 대한 일층 성숙한 학문적 파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점, 그리고 나아가 동양학의 부흥이 20세기를 넘어설 새로운 사상의 씨앗을 발견할 단서가 되었으면” 한다는 문학과지성사의 ‘동양학술총서’(편집위원장 최원식)의 출간의도는 우리 학계의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의 지적, 사회적 배경과 방향을 집약하고 있다.

동양그룹 서남재단의 지원하에 동양학 전반으로 그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기대되는 ‘동양학술총서’의 첫째권이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이다. 총서의 기본적인 방향을 선도할 만한 개설적인 성격의 국내의 학자

### 최근 우리 학계의

동아시아에 대한 높은 관심은

냉전체제 와해로 강대국 중심의

국제정치 구조가 변했고

경제적인 블록화가 진행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이 새로운 희망구로

급부상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힘입은 바 크다.

역사·사회·문화 등 연구주제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의 논문 13편을 묶었다.

《동아시아(東亞史)상의 보수와 개혁》(이춘식 엮음, 신서원)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추진되었던 개혁의 역사적 의미를 고찰한 책이다. 동양 3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개혁정책을 살피고 이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동아시아 문학 기본구도》(김재수 지음, 박이정)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문학을 문학의 한 연구단위로 설정하여 동아시아 문학과 비동아시아 문학과와의 관계, 동아시아의 전근대문학과 근대문학과와의 관계, 한·중·일 각국의 문학들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문학의 기본 구도를 정립하고자 한 책이다.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정치제도와 경제성공》(국민호 엮음, 전남대출판부)은 전남대 교수인 저자가 발전국가론적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신흥공업국(ANICs)의 사회변동과 경제발전을 분석한 논문들을 번역하여 엮은 책이다. 다른 제3세계 국가들에 비해 발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요인과 국가 경제정책의 역할, 발전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경제, 사회 발전에 대한 이해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동양학이라 할지라도 중국이나 일본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연구범위를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 확대한 것도 최근 동아시아 연구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이다.



동아시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연구서들.

《동남아의 정치변동》 《현대 동남아의 이해》(서울프레스) 등을 펴낸 ‘동남아 지역연구회’(회장 신윤환), 《동남아 정치와 사회》(한울)를 펴낸 ‘한국 동남아학회’(회장 안충식)내의 분과모임인 ‘동남아 정치연구회’ 등 80년대 말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학회들의 의욕적인 활동과 연구성과도 황무지 상태의 이 지역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남아지역연구회가 얼마전 펴낸 《동남아의 정치경제》(서울프레스)는 동남아 사회와 문화를 장기간 체험한 후 학문적 체계를 쌓아 올린 동남아 전공학자들의 논문을 모은 책이라는 점에서 주로 입문서나 번역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행해진 연구를 답습하거나 모방하던 데에 그치고 있던 이 지역 연구서들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브루나이를 제외한 모든 동남아 국가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필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경제사, 산업화 전략, 외자정책 및 지역경제협력 등 네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다.

### 동남아쪽으로 영역 확대

《일제하의 동남아》(김영애 외 지음, 한국외국어대출판부)는 주로 정치,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동남아 지역 연구의 관심을 다각화했다는 데서 우선 관심을 끈다.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점령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제국가의 민족의식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핵심 주제로 한 7명의 논문을 모았다. 일본의 지배가 동남

아인들의 생활전반에 막대한 변화를 야기해 민족의식 발전에 원동력이 됐다는 종래의 ‘단절론’의 시각을 비판하고 민족의식의 발전을 내적 동력의 연속성상에서 파악한 ‘연속론’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출발, 관심의 대상과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동아시아에 대한 우리 학계의 관심과 그 연구성과에 대해 양승운 교수(한국외국어대 마인어과)는 “동양의 일원이면서도 동양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던 우리 학계의 정상적이고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서는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이 분야 연구가 일천하고 주제가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연구 주제를 역사, 사회, 문화적인 것으로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남아의 이슬람 문제나 화교 경제문제들은 좋은 예다.

동아시아를 알고자 하는 학계나 우리 사회의 노력은 이제 막 첫발을 내딛은 셈이다. 비록 많이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이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사뭇 절실하다. 동아시아가 지니는 정치, 경제적 중요성 외에도 천박한 자본의 논리, 강대국 중심의 냉전논리 외에 한국상황과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시각을 지니지 못했던 우리 사회에 동아시아에 대한 올바른 방향의 관심과 연구는 대안적 관점을 제시해줄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박남정 기자